

성 십자가 현양축일

기도서 506면 (C해)

제1독서 : 민수기 21, 4b-9
 제2독서 : 필립 2, 6-11
 복음 : 요한 3, 13-11

숲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구리뿔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려야 한다(요한 3, 14).

□ 감론



험상곳은 아줌마!

이 상 섭 신부

오늘 말씀은 모세가 높이 든 구리뿔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다는 단순한 말씀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뿔을 보고서 잊어버렸던 하느님을 생각하고 다시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는 말씀이다. 이와같이 신약의 우리들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오늘 십자가 현양축일을 맞이하여, 십자가에 대해서 잠깐 묵상해 보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한 청년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그의 집을 처음으로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 준 여자의 얼굴이 매우 징그럽고 험상궂게 이그러져 있었고 얼굴 한쪽은 새까맣고 다른 한쪽은 검붉은 색을 띠고 있었다. 친구들은 그 여자의 얼굴이 무섭기도 하였지만 어떻게 저러한 가정부와 한지붕밑에서 사는지 의아해 했다. 가정부의 안내로 방에 들어갔을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청년은 친구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인사를 시켰다. 조금 전까지 섬뚱하게 느껴졌던 그 여인이 가정부가 아니라 어머니였다는 사실에 친구들은 깜짝 놀랐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얼굴이 험상궂고 추한 모습이라고 흉을 볼지 모르지만 그 청년이 갓난아기였을 때 어머니는 아기를 방에 재워놓고 밤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집은 불길에 휩싸여 타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죽음을 무릎쓰고 불속에 뛰어들어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오다가 심한 화상을 입어 지금과 같은 추한 모습이 되었던 것이다. 사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이 그 아들의 생명을 건졌고, 그 청년은 추하고 비참한 어머니의 얼굴을 볼 때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진다는 것이다.

2000년 전의 십자가는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도구로써 가장 수치스러운 상징이다. 그러기에 십자가 상에 못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추하고 비참한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써 이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다. 마치 청년의 어머니의 추하고 비참한 얼굴 모습에서 자식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추하고 비참한 모습에서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을 엿볼 수 있다.

이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이며 수치의 표시가 아니라 영광의 표시가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가 된다. 때문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예사로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기쁨이 있음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대한 신앙을 나의 실생활에 옮겨 영원한 구원의 참 기쁨을 얻도록 하자.
(상관분당 주임신부)



막걸리값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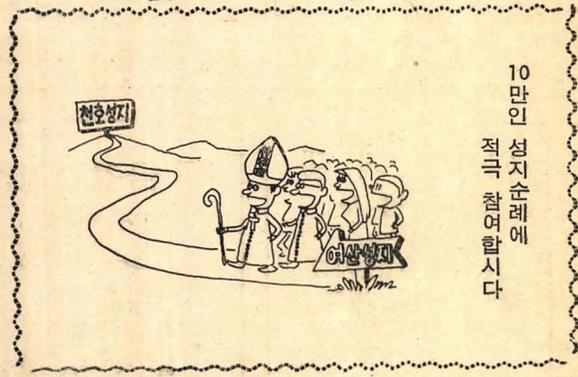
지난 8일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학부모의 「시위반대 시위」가 있었다. 이는 전국 학부모 중앙 협의회라는 단체가 주도한 시위(행사?)인데, 40여 명인 시위대의 대부분이 환갑을 훨씬 넘은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회장의 선창에 따라 팔을 치켜들며 구호를 외쳤지만, 별 표정없이 대부분 마지못해 따라하는 듯 했다. 그리고 주최측은 「연락 유인물」과 회장 사진이 실린, 선거벽보를 연상시키는, 「활동현황」이라는 책자도 돌렸다.

「나이 드신」 학부모들의 모습에 의아하게 생각한 기자가 물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대한 노인회 관악지부 부설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어...”/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려고 오셨나요. —“.....”/말이 없던 할아버지는 재차 질문을 받고서야 “막걸리값이나 준다길래...”라고 말하고는 축스러운듯 시선을 피했다(이상 9월 9일자 동아일보 6면 「창」참조). 참으로 듣기 거부한, 가슴을 잘기잡기 찢어놓는 대화가 아닐 수 없다.

아시아인 게임을 위한 캠페인에 학생들을 동원해서 말쟁이 되었던 것이 엇그제 일이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꼭 이래야 하는가!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막걸리값이나 준다길래’ 따라나서다니! 더 나쁜 것은 막걸리 한 잔 값이 아쉬운 노인네들을 몇 푼의 돈으로 유인(?)한 저질의 술책이다. 이날 서울대 정문 주변에는 아침부터 사복경찰 50여명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니, 이들의 「시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니... 이런 엉락없이 찌고 하는 소름 보는 기분이다.

이 일이 시사하는 바가 실로 크다. 먼저 내 자신부터 겸허하게 살펴보자. 혹시라도 나역시 막걸리값에 홀려서 살지나 않는지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일하던 김형 배씨의 양심선언이 다시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다.

숲정 이 산책



✽선조를 기억하는 차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절중의 하나인 추석을 맞아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도록 권하면서 아래와 같이 그 예식 절차를 제시해 봅니다.

〈미 사〉

될 수 있는대로 가족이 모두 함께 아침미사에 참여하여 본당 공동체와 함께 후손을 위해 기도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차례 예식〉

1. 성호
2. 성가: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
3. 독서: 제시하는 성서 구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봉독합니다

- ① 요한 14, 1~14
- ② 요한 15, 1~12
- ③ 요한 17, 1~26
- ④ 루가 2, 41~52
4. 가장의 말씀
5. 큰절: 서열순으로 영전에 큰 절을 드립니다(남여 가리지 말고)
6. 사도신경, 부모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등(기도서 참조)
7. 성가: 성가집에서 하나를 선택
8. 주의기도: 다함께 바칩니다.
9. 식사: 차례 음식을 나눔시다. (음복)-사랑과 일치 의 식사
10. 성호경으로 모든 예식을 끝냅니다.

대사(大赦)란 무엇인가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에 즈음하여-

죄를 지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교회는 고백성사를 통하여 그 죄를 사면해 준다. 그러나 고백성사를 통하여 죄는 사면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따른 벌, 즉 잠벌(暫罰)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잠벌을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보속(補贖)을 통하여 사면될 수 있는데, 현 세에 보속을 하지 못한 경우 연옥에서 보속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이 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을 대사라고 한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는데 대사의 근거는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쌓아 놓은 보속의 보고(寶庫)에 있는 보속을 교회의 권리로 각 영혼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대사는 보통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로 나뉜다.

전대사란, 죄인이 받아야 할 벌을 전부 없애주는 것이고, 한대사란, 그 벌의 일부분을 없애주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대사제도는 초대교회 박해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교회의 보속규정에 의하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보속하는 속죄기간을 거쳐야 그에 해당하는 벌을 사면받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해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규정들을 지키기 힘들었고 후에 신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데 일종의 장애요소로도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 주교들은 속죄기간을 단축하여 주기도 하였다. 이 속죄기간의 단축이 대사의 기원을 이룬다. 그 후 중세 초가 되면 속죄기간의 단축 대신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이른바 대사의 원형이다.

그 후 트리엔트 공의회는 정식으로 대사 규정을 만들어 대사의 남용을 규제하였고 교회법에 규정되었던 심한 보속은 폐지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대사에 대한 법을 제정하며 대사의 의미와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대사를 받기 위해 신자들이 해야 할 의무들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신자로서 고백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성당이나 성지를 참배하고 교황의 뜻이 이뤄지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금번 자치교구설립 50주년 기념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을 위하여 교구장은 도보 성지순례 대사 특전을 선포했다.

우선 대사를 얻기 위한 선행으로 교구에서 지정한 성지순례에 참여하거나(지정된 교구내 성지순례, ①전주 순정이→치명자산 순교자묘 ②여산 순정이→천호 순교자묘: 두 성지중 한 곳만 순례해도 가함) 가난한 이웃이나 버림받은 이웃에 대한 사랑실천을 하고 대사 조건인 고백성사와 영성체 그리고 교황이 지향하는 바 기도를 함으로써 베풀어지는 대사를 받을 수 있다.

◇ 10만인 성지순례 담당안내(오후 2시~5시)

일	요일	1코스: 전주 순정이→치명자산		2코스: 여산 순정이→천호 순교자묘지	
		담당신부	봉 사 자	담당신부	봉 사 자
14	일	김정원 신부	연규식·양민우	김병운 신부	김성균·이영미
20	토	김치삼 신부	김진면·김혜경	유종환 신부	전종희·이명숙
21	일	김영진 신부	김성균·이영미	문규현 신부	연규식·양민우

나 비 커 텐
엽 가 봉 사
 라자가구 옆
 선경커텐 종합전시장
 전주시 중앙동 2가53-5
 전화 82-2226
 2-5198
 박 소 화(테레사)

이리 **금강안경원**
 교우 우대함
 ☎ 54-5130
 (상업은행 옆)
 김 강 석
 김 숙 자(마리안나)

전북의료조합 지정
김 생 기
산부인과
 전문의 김 바오로
 신 실비아
 전주 ☎ 6-6077
 (조흥은행앞 윤의과 내)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시설
 ☎ ③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교 구 소 식

1. 교구 혼인법원 : 16일(화) 오후 2시, 장소-교구청 사무국
2. 성고문·옹공조작 규탄대회 : 15일 오후 8시, 장소-오룡동 천주교회
3. M·E 소개모임 : 21일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M·E 사무국
M·E 14차 다리과정-21일 오후 3시, 장소-센터 강당
4. 베델성서 제4기 성서편 개강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강사-김준호 신부님, 회비-2만원(1년분), 교재대-1만5천원
접수-교육국(☎0041) 20일까지 선착순 30명, 개강-24일(수) 오후 7시30분
5. 제7기 혼인강좌 : 22일~26일(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회비-3천원, 접수 및 문의-교육국(☎0041)
6. 제10기 예비자 교리반 개강 : 일시-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접수 및 문의-교육국(☎0041)
7. 9월중 레지아 회의 : 21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레지아 회의실
참석대상-산하 평의회 및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추석 성묘, 합동 연도 및 위령미사 안내

일시 : 9월 18일, 오전 10시-합동연도, 10시30분-위령미사
 장소 : 전주지구 교회묘지(솔개재)
 집전 : 총대리 신부님과 전주 시내 사제단
 미사에올 접수 : 각 본당 사무실 및 묘지관리위원회
 벌초 사례금 접수 : 필히 묘지 관리위원회에서 비치한 사례함에 넣어 주시기
 바람
 버스 이용안내 : 당일 9시30분·10시10분 중앙성당 출발
 전주지구 묘지관리위원회

※ 가정기도 독서 : 시편 61:1~8 루가 18:9~14

♣ 잡 간 !

순례의 길-대성할

순례(巡禮)란, 하느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땅, 즉 성지(聖地)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는 경신행위를 말한다.

지금 우리는 자체교구 설정 50주년을 기념하면서 10만인 성지순례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다. 그 첫날인 지난 주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 성지 두 곳(여산순경이→천호묘지, 전주 순경이→치명자산) 순례길에 2,810명(순례헌금 2,095,140원)이 참석해 성스러운 성황을 이뤘다.

이제는 나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은혜로운 때, ...성스러운 땅을 걸으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자.

좀더 합당한 준비로-

상관본당(주임 : 이상섭 신부)에서는 매주 수요일저녁, 미사에 대한 전례공부를 새로이 하고 있다. 미사의 은혜를 충분히 받기 위해 전례 때의 자세부터 기도해설, 대화를 통한 미사 이해, 그리고 전례 안에 일치를 이루려는 노력을 새롭게 하면서 능동적 전례참여를 노력하고 있다 한다.

사실 어느 전례나 마찬가지로 그 전례를 통한 은총을 제대로 못받음은 우리의 준비가 부족한 때문이다. 특히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흠숭과 감사, 보속과 구원으로 무한한 효과를 낸다. 준비한 만큼 은총을 받는 것이다. 우리 모두 좀더 합당한 준비로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미사에서 얻는 무한한 은총을 받도록 노력하자.

한일쌍크전시장

가스렌지 일절

영업용 쌍크 전시판매장
 이리시 중앙동 3가57-8
 전화 3-2676

이 문 회

강 영 자(사비나)

이 리 성 모 병 원

양방과

내 과
 피 부 과
 소 아 과

한방과(신설)

내 과
 부 인 과
 물 리 치 료 과

중풍센터, 요통 및 성인병센터(부설 : 물리치료실)

이리시 영등동 268 전화 3-0714~5

요심이 (684) 김병오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부문 및 자격
 - 1) 모집인원 : 여자 ○명
 - 2) 자 격
 - ① 만18세 이상 20세 이하
 - ② 고졸이상 졸업자(주산 2급이상, 부기 3급이상, 타자 3급이상 자격소지자)
 - ③ 전주 시내 거주자
 2. 제출서류
 - ① 자필이력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
 - ④ 자격증 원본 및 사본
 3. 접수마감

86. 9. 20(토요일) 12:00
 4.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
 5. 전형일자

86. 9. 21(일요일) 14:00
 6.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7. 기타사항은 직접 문의바람
 (☎ 4834 · ☎ 0954)
- 노송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제 I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인 곽
아파트 75-6389 사목회장 노 인 석

1. 금주는 성소주간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소(결혼, 평신도직)와 특수성소(성직, 수도직)에 관해 생각하고 실천하는 주간입니다
 2. 추석합동 위령미사봉헌: 18일 오전 5:30(10시 묘지에서) 저녁 8시 각 가정의 선영들을 위해 모든 가정에서는 미사에물 봉헌합니다
 3. 꾸리아 율례회: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성지순례 무사히 잘 마칠: 여기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순례 참가인원 1,385명)
 5. 축, 남성 레지오 증설: 상지의좌pr 탄생 단장-김용환, 부단장-윤석연, 서기-이정진, 회계-황연옥, 수고하시겠습니다
 6. 사도의 모후pr 임원개편: 단장-박종구 부단장-강인수, 서기-노원규, 회계-전태린
 7. 금주전례: 해설-전병구, 독서, 봉헌-김진희 부부, 신자기도-백중영 부부, 촛불봉헌-배기창 부부 차주전례: 해설-최명자, 독서, 봉헌-손노석 부부, 신자기도-노영석 부부, 촛불봉헌-문명식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65,740원 교무금: 125,000원
지난주 신축금: 140,000원

(복자)

사제관 83-0592 주임신부 김 기 수
사무실 2-5238 사목회장 김 성 원
수녀원

1. 꾸리아: 오늘 오후 2시
 2. 성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재속형제회(삼회): 19일(금) 치명자 산에서
 4. 혼인상담: 1개월 전에 신청바랍니다
 5. 추석합동 위령미사 18일(목) 새벽 6시·지녀 7:30분 미사
 6.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공사 특별헌금 익명-2,000,000원, 강만춘-1,000,000원, 익명-500,000원, 재속형제회(삼회)-100,000원, 익명-1,000,000원, 계-8,100,000원 누계-14,300,000원
 7. 덕진 송천동 성당 건립기금 마련 버개 판매 빈첸시오 집에서
 8. 금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강주호 ②오장수 봉헌-엄기택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김재식, 독서-①조성호 ②천 진 봉헌-유영귀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92,020원 교무금: 434,450원

(삼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상 섭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이 정 우

1. 순교자 성월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10만인 성지순례에 적극 참여합니다 매주 토·일요일 오후 2~5시, 숲정이~치명자산
2. 추석합동 위령미사: 18일 오전 10:30분 선영들을 위한 미사에 모든 가정에서는 빠짐없이 미사에물을 봉헌합니다
3. 감사: 1지구 성금-전동 20만원

4.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5. 교회 홍보매체를 이용합니다 경향잡지, 가톨릭신문,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6. 신자의 본분인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7. 본당 올드레아: 24일 저녁미사 후
 8. 숲정이 은인을 찾습니다: 1주에 5천원
- 지난주 봉헌금: 115,350원 교무금: 61,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강 덕 창
사무실 " 사목회장 김 낙 규
수녀원 2-2276

1. 예비자 교리반을 계속 모집하고 있으니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인도 바랍니다 학생-토요일 오후 6시, 일반-화요일 7시30분 일요일-공식미사 후
 2. 반장님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프란치스코 형제회: 오늘 오후 1시
 4. 성모회: 21일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식: 25일 오후 2시
 6. 추석합동 위령미사: 9월 18일 선영들을 위하여 정성어린 미사에물을 봉헌합니다(미리미리 사무실에 접수바랍니다) 미사시간: 새벽미사·공식미사·평화동 9시미사 있음
 7. 금주전례 본 당: 해설-고정수, 독서-①김한기 ②강기호 봉헌-민병석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정형석 ②박형식 봉헌-황석순 부부 차주전례 본 당: 해설-김배근, 독서-①진성복 ②조정웅 봉헌-유용산 부부 2성당: 해설-문치구, 독서-①김광택 ②박병환 봉헌-강수중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23,470원 본당-300,770원
계: 424,240원 교무금: 203,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최 상 범
수녀원 2-8347 사목회장 김 병 오
레지아사무실 83-5085번

- ☆ 축! 영세: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 자모회: 공식미사 후
 2. 소년 꾸리아: 오늘 오후 1시30분
 3. 추석합동 위령미사(18일): 오전 5시30분 오후 7시30분 앞서가신 선영들을 위해 모든 가정에서 빠짐없이 미사에물 봉헌합니다-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4. 성화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5. 레지아: 다음주 오후 2시
 6. 주민등록 등본: 각 가정은 1통씩 반회장님을 통해서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7. 일요일 예비자교리는 10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37,230원 교무금: 450,000원

(호자동)

사제관 83-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목회장 이 정 선
수녀원 2-4804

1. 장학금 지급: (대학생) 권석규·고영선 (고등학생) 윤형석·김 민
 2. 수요성서 강좌: 17일 강의없음
 3. 올드레아 정기총회: 21일 공식미사 후
 4. 오늘의 모임: 글라라회-공식미사 후
 5. 추석 합동미사: 18일 오전 5시30분·오후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543,240원 교무금: 441,000원